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 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6년 8월 2일(일) 제1600호

바로 그 교회의 비전, 우리의 몫!

7월 27일~31일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 추모 기간 보내
새벽기도회 생전 설교 영상 상영, 31일 15주기 추모 예배

7월 31일(금)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드린 하용조 목사 소천 추모예배.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를 보냈다. 지난 7월 27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故 하용조 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보냈다<관련 기사 4면>. 이 기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 영상을 상영했다.

하용조 목사 소천 추모예배는 7월 31일(금)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드렸다. 유가족,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이인용 장로,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 사회,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김영미 권사, 블러썸챔버 특순, 강부호 목사 메시지, 유가족 인사, 이재훈 위임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하용조 목사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이날 메시지는 강부호 목사가 '소원과 이룰 힘을 주시는 하나님' (빌 2:12~13)을 주제로 했다. 강 목사는 "하나님이 故 하용조 목사님에게 주신 소원인 '바로 그 교회' 의 비전을 완성해 가는 일은 다음세대인 우리의 몫"이라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더욱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가족 인사는 하성석 부원장(故 하용조 목사 아들)이 했다. 하 부원장은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바라셨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이 아버지가 바라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석 장로(서대문공동체)는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켜 참된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아웃리치 안전관리 수칙 확인 및 점검 철저

여름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사전 준비와 점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웃리치 출발 전부터 안전관리 수칙을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기저질환자는 출발 전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200개 팀 4,689명, 해외 146팀 2,609명이 참가한다(7월 31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는 거창, 가평, 제주 등지에서 이미용 봉사, 교회 보수 등을 한다. 해외 아웃리치는 터키, 몽골 등지에서 사역자 블레싱, 전도 초청 심방 등을 한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을 개최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8월 31일(월)까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또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6)와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onnuri.acts29) 태그,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응모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A4용지 1장 분량의 간증과 가로형 사역 사진, 작성자 최근 정면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제출하면 8~9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 박지혜 기자

8월 비전헌금,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후원

8월 8~9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을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6월 24일 규모 7.2와 7.5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여진이 1,500여 차례나 이어졌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 5,546명, 부상자 16,740명, 이재민 17,907명으로 집계됐다(7월 25일 기준).

'러브소나타 이와테' 참가자 모집

8월 8일~20일까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

'러브소나타 이와테'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8일(토)부터 20일(목)까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을 한 다음 3일 내에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접수비를 납부해야 한다. 접수비는 A팀(2박 3일) 60만 원, B팀(3박 4일) 70만 원이다. 잔금은 9월 10일(목)까지 완납해야 한다. 카드 결제는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팀은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아오모리공항을 이용한다. B팀은 10월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하나마키 공항을 이용한다. 참가비는 항공료와 숙박, 식사 등 현지 체재비를 포함해 A팀 126만 원, B팀 152만 원이다. 선착순 모집한다.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 (요 7:38)을 주제로 열리는 러브소나타 이와테는 10월 21일(수)과 22일(목) 토사이클래식홀에서 막 오른다. 21일 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22일 리더십 포럼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문의: 02-570-7415 / 박지혜 기자

우누스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8월 8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우누스오케스트라(단장 김용섭)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Connect with' 가 8월 8일(토)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우누스오케스트라와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제주 성안교회(위임목사 류정길) 및 우누스오케스트라 학부모회가 후원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 '아주 먼 옛날', 첼리스트 김영환 '첼로 모음곡 1번', 사랑퀸텟(Sarang Quintet, 사랑챔버 소속 5중주팀) 및 김영환 '파사칼리아',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 이예림 및 피아니스트 이지은 '나바라', 우누스오케스트라 '쥬피터', '신세계 교향곡' 등을 연주한다.

우누스오케스트라는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다. 42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10-5645-5450, 02-3215-3263

기독교세계관_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3면 | 아웃리치_ 2026 여름 아웃리치 간증 5면 * 다음주 신문(8월 9일자)은 여름 휴가 관계로 휴간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나를 따르라(11)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빌립보서 2:12~18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이어가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은혜를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브리튼 출신 수도사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인간에게는 이미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입니다. 결론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혜 없는 노력,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빌 2:12).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빌 1:6).

그 '선한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녀이자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2절은 '철저히 끝까지 시작된 것을 끝까지 완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이 시작된 자로 끝까지 이루어 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일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자체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건져낼 수 없으므로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씀만 붙잡으면 자신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노력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손을 떼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경건한 말씀 같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씀하는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의 행함이 어우러지는지를 깨달으려면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약속

12절 말씀은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명령이며, 1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빠뜨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을 때는 접속사 '왜냐하면'을 붙여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야 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뜻을 주시고, 그 뜻에 따라 행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함을 부정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행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순종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과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과거의 모든 삶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구원입니다. 곧 칭의(Justification),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것은 100%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죄의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건져집니다. 우리의 몸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영화(Glorification)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그 사이에 현재의 구원, 성화(Sanctification)가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완성의 날까지 걸어가는 오늘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과 별개가 아닙니다. 칭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위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구원이 없었다면 현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서 모든 행함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갈 때 장차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칭의를 흔드는 말씀이 아니라, 칭의 위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습성이 구원을 가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제거해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무서운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조심스러운 자녀의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분의 일하심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나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라"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 없이 합니다(14절). 우리 삶에 불평과 분쟁이 없는 것,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적용할 때 관계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시비와 분쟁이 사라집니다. 이 말씀은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원망과 시비, 불평과 분쟁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원망과 불평, 시비와 분쟁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보십시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어둠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원망과 시비, 불평과 분쟁 없이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15절).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가르고 분석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빛이 드러날 때만 어둠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17~18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높이고 자신을 부속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믿음의 본 제물이고, 자신은 부속적인 걸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처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즐거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행과 고통의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시비와 분쟁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으로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명령은 은혜를 취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고백과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의 제자도를 이어가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법적으로 동성 결혼식 케이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까?

대화 중 누군가가 "차별하는 건 불법이야. 당신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동성 결혼식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줘야 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결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동성 결혼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뜻일까? 그 대답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동성 결혼식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동성애자에게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과 다르다. 꽃이든, 사진이든, 케이크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업체와 "나는 기꺼이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요청하는 그 서비스는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업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법들은 사업체가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만, 누군가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업체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신념과 한계가 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람의 신념이 인기가 없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념을 어기는 행동이나 말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인기 없는 신념을 보호한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신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동성 결혼은 한때 매우 인기가 없었지만, 상황이 변했다. 그렇다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표현의 자유도 변했다는 뜻인가? 아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우리가 인기 없는 말과 행동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삼겹살은 아주 맛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 삼겹살이 맛있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길 말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자유를 가지면서도,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유익을 얻는다. 결국,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 권력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다.

셋째,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법원들은 압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정부의 강제를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들은 인쇄업자에게 그가 동의하지 않는 문구를 티셔츠에 인쇄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방관들이 결혼에 관해 믿는 신념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군목들이 성에 관한 기독교적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법원들은 사업체들이 동성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논쟁하는 사이에 우리는 다음 한 가지에는 동의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건 아니다'라고 느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법을 내세워 양심을 어기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동성 결혼식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동성애자에게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과 다르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은 인기 없는 신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기 있는 신념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일터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오세현 장로
(인천온누리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루 중 오랜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그러나 일터를 신앙과 완전히 분리하거나 혹은 충분히 연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 결과, 신앙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터가 요구하는 '현실' 사이에서 내적 갈등과 무력감을 경험한다. 때로는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패배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간극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일과 일터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안에서 이해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신앙을 교회 사역이나 '거룩한 일'에 한정하고, 기업의 존재 목적과 가치 설정, 구조와 조직문화,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이라는 조직 차원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통화하고, 성과를 관리하며 동료와 협력하는 일상의 업무를 신앙과 분리된 영역으로 여기는 성속 이원론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일과 일터가 지닌 성경적 의미,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일터에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거나 상황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개인의 신앙적 미성숙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성경적 세계관, 일, 일터의 의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부족, 일터 현장의 성과와 생존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불합리한 권력관계와 고용불안 등 혼재된 세계관 아래에서 구조적 환경문제, 신앙적 판단을 함께 나눌 공동체와 멘토의 부재 역시 신앙과 일터의 간극을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터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과 일터에서 맡은 역할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성경적 원리를 업무의 목적과 방식, 인간관계와 의사결정, 윤리적 갈등 등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도록 돕는 신학적, 실천적 형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 일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인간에게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며 돌보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 본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여된 축복이자, 부르심이다. 타락으로 일터 영역이 온통 뒤엉키게 되었지만, 신앙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구속의 대상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관점으로 일과 일터를 다시 보도록 요청한다. 일과 직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소명이자,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통로가 된다.

각자 보냄을 받은 일터는 그 자체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교육, 법률, 예술, 경영, 정치, IT 등도 각각의 고유한 책임과 질서를 하나님께 받았고, 궁극적으로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 일터는 혼합된 전혀 다른 세계관의 문화가 영향을 주는 선교지이기도 하다. 일터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소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드러내는 거룩한 현장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치열하게 삶으로 증명해 내는 곳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살아내야 할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문화의 변혁에 참여하기를 요청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대리인으로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한다. 나를 통해 일터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께 속한 청지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일터 영성은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다. 탁월한 결과를 지향하는 것뿐 아니라 과정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행하며,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일했는가를 기준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맡겨진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기본 영성이며, 동료의 공을 가로채지 않는 정직함, 눈가림으로 넘어가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다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부당한 관행에 침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된다.

셋째, 상황화를 통해 살아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경건을 넘어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되, 성경적 가치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삶의 양식과 언어로 번역하는 지혜로 대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는 없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회색지대 문제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가치에 따라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칭찬과 공로를 독차지할 수 있는 순간에 동료들의 기여를 함께 언급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익을 위해 원칙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이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인상을 남긴다. 어떤 이슈들은 개인의 업무를 넘어 조직 단위의 근간이 되는 방향성이나 구조 및 제도가 포함된 조직문화 변혁과 관련되기도 한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을 고려하면서 동료 및 공동체와 연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회복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인사 담당자는 성과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과 회복을 중시하는 평가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다. 마케팅 담당자는 왜곡된 욕망을 자극하기보다 진짜 유익을 제공하는 메시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

동시에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일터의 복잡성과 구조적 현실을 진지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 성도들이 일터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분별하고 지원해야 한다. 일터의 일상에서 작은 살아내기를 지속할 때, 우리 삶 자체가 보이는 복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복음이 된다. 가시적인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신실한 실천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뜻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깊은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름, 하용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이름이 있다. 故 하용조 목사.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며, 열방을 품었다. 그가 남긴 복음의 흔적은 여전히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하용조 목사를 추모하며 그의 삶과 신앙을 다시 꺼냈다. 새벽기도회와 추모예배,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데운 그리움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새벽기도회에서 다시 만난 하용조 목사

온누리교회는 지난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 故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 영상을 상영했다.

평소와 모든 게 같았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강단에 선 설교자가 영상 속 하용조 목사였다는 점뿐이었다. 성도들은 하용조 목사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가 남긴 복음의 유산이 지금도 온누리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되새겼다.

저는 2007년 온누리교회에 처음 출석했고, 그때 40일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잠실학생체육관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던 장면은 지금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가장 큰 메시지는 '선교'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하신 'Acts29 비전'과 '선교사 2,000명 파송의 비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 새벽기도회에서 들은 설교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면, 과거 잠실학생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부흥의 열정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 100개 언어로 가스펠 재즈곡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곧 산 제물로 드려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평생 외치셨던 선교의 비전이 온누리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 한상운 집사(관악금천공동체)

온라인에서도 이어지는 추모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추모 게시판에도 성도들의 추모 메시지가 올라왔다.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싶었는데, 메시지로나마 목사님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모하는 목사님, 늘 보고 싶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 정민음 성도(가명)

"마음의 가난을 수없이 경험한 30대가 되어서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장사랑 성도(가명)

일본 목회자들의 그리움

故 하용조 목사와 일본 선교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다. 일본 현지 목회자들도 여전히 하용조 목사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일본 목회자들이 '하용조 목사 소천 15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

20년 전, 일본 교회 목회자들과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러브소나타'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하용조 목사님은 러브소나타를 일본에서 몇 년 정도 개최할 계획이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요"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적인 마음을 품은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크게 감동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 소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사명을 이어가고 있어서 깊이 감명했습니다.

/ 시미즈 쇼조 목사(다카이시 성서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일본 선교 역사에서 '보배'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전해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눈물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단순히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연약한 우리에게 목숨을 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제가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오카와 츠구미치 목사(야마토 갈보리 채플)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일본 교회와 선교를 위해 가까운 미래에 'CGNTV'와 '러브소나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일본 선교를 활성화하고 싶다며 지도와 협력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동역자와 협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일본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 깊이 찬양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과 뜨거운 기도, 그리고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요도바시 교회)

지난 55년 목회 여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만남 중 하나가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목사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연약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 말씀에 기반한 진실한 신앙과 목회 철학이 지금도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특히 2007년 7월 러브소나타 도쿄 대회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본을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일본을 향한 제 신앙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붙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 시타미치 사다미 목사(삿포로 레인보우 차펠)

양재A공동체
거창 하성교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앞서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난 7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양재A공동체 소속 성도 68명이 거창 하성교회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지체들은 중보기도를 비롯해 미용 봉사, 발 마사지, 어르신 사진 촬영, 교회 외관 보수 등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겼다.

아웃리치 시즌이 되면 공동체 목사님이 늘 '아웃리치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는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막상 아웃리치 공지가 올라오면 현실적인 고민이 먼저 앞섰다. 회사 일정은 괜찮을지, 아이는 어디에 부탁할지, 강아지는 누가 맡아줄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지 등 여러 생각이었다. 그렇게 매년 반복되던 고민을 이번에도 내려놓고 하성교회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올해 하성교회 표어였다.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지난 2월부터 우리 가정을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다. 나는 남편이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전도집회에 초청했다. 남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함께 초대했다. 아직

양재A공동체가 하성교회 성도들의 발을 마사지하며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공동체에 깊이 정착하지 못한 남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초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는 아직 이른 일이 아닐까 염려하기도 했다.

이번 거창 아웃리치에 남편과 그 선배가 함께 참가했다. 선배는 교회 외벽 페인트 봉사를 맡아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묵묵히 낡은 벽을 새롭게 칠했고, 남편은 빙수 봉사를 맡아 제빙기를 돌리며 어르신들과 지체들에게 시원한 빙수를 대접했다. 이를 지켜보시던 공동체 팀장님이 〈잠언〉 말씀으로 격려하셨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잠 25:13).

두 사람의 섬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품었던 염려가 얼마나 작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왔다. 남편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섬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그 선배 역시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기도했다.

하성교회의 표어는 단지 벽에 걸린 문구가 아니었다. 전도팀을 통해 복음을 들으신 두 분의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주일예배에 참석하셨다. 예배 이후 이어진 하성교회 블레싱 시간에는 지역 성도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섬기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하성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역사는 계속될 거라는 소망을 품었다.

내년에도 아웃리치 소식을 들으면 다시 현실적인 고민부터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성령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도 우리의 계획과 능력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양재A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이자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최희윤 성도
(양재A공동체)

성북공동체
몽골

섬기러 갔다가 더 큰 은혜를

지금 몽골은 복음이 팽창하고 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이번 아웃리치에서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 몽골 책임 선교사가 된 이요한 선교사님이 섬기는 '생명샘교회'에서는 반경 100km를 중심으로 34개 교회가 매주 지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전체 연합집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연초부터 리마 목사님(생명샘교회 담임)과 이요한 선교사님에게 몽골에 아웃리치를 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생명샘교회 핵심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를 위한 전도 초청 심방과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들의 필요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성북공동체가 쌓은 두 차례의 성공적인 몽골 아웃리치 경험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연초 성북공동체 리더십 수련회와 개강예배에서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몽골의 나담축제(7월 10~15일) 이전에 아웃리치를 해야 수련회 장소와 숙소를 원활하게 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휴가철이 아닌 7월 초에 아웃리치 일정을 잡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성북공동체 성도 무려 56명이 아웃리치 참가 신청을 했다.

즉시 몽골 아웃리치 경험자를 중심으로 각 사역의 팀장을 세웠다. 4박5일 짧은 기간에 비해 사역이 다채롭고 많았지만, 사전에 잘 짜인

성북공동체 팀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과 운동회를 즐기는 생명샘교회 성도들.

팀별 리더십을 중심으로 성심껏 아웃리치를 준비한 덕분에 모든 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됐다.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쁘게 섬겨준 팀원들의 헌신 역시 대단했다.

첫째 날에는 15가정 27명의 현지인 사역자 블레싱을 했다. 둘째 날 열린 16가정 전도 초청 심방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 사전 훈련을 마친 조장들을 세우고, 팀원 56명을 8개 전도조로 나눴다.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놓고 한국에서부터 기도했고, 특별선물도 준비했다. 가정방문을 할 때는 한국에 가서도 기도하겠다며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사역을 마치고 전도대상자 대부분이 영접기도까지 했다는 소감을 팀원들끼리 나누는 순간에는 벅찬 감동이 있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졌을 것으로 확신했다. 셋째 날부터는 1박2일 생명샘교회 수련회와 부흥집회, 캠프파이어를 했다. 이기복 목사님(성북공동체)이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열심과 충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자"고 설교 하셨는데 그 권면 그대로 실행됐다.

팀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K-culture 프로그램과 운동회는 현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이기복 목사님의 뜨거운 부흥집회 인도와 병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 주일에 있었던 청소년들의 진심 어린 세례 간증과 강가 세례식은 모두가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대상 연합 찬양집회를 꿈꾸게 하는 거룩한 계기가 되었다.

올해 성북공동체 해외 아웃리치는 섬기러 갔다가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왔다. 4박5일 동안 하늘에 큰 열매를 쌓아두고 온 기분이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무지개로 화답하셨다. 솔직히 고령자부터 아동까지 무려 56명이나 아웃리치에 참석했기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 큰 상처를 안고 온 이들도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염려를 내려놓고,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축복의 장(場)이었다.

강현원 팀장
(성북공동체)

CGN 퐁당, '하용조 목사 특별관' 공개

모바일 퐁당 앱과 홈페이지에서 시청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 퐁당이 지난 7월 27일(월) '하용조 목사 특별관'을 공개했다. 모바일 퐁당 앱이나 홈페이지(www.fondant.kr)에서 회원 가입 이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QR 코드 참고).

하용조 목사 특별관에서는 故 하용조 목사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비롯해 믿음, 순종, 세븐블레싱, 십계명 등 주제별 말씀과 특집 다큐멘터리, AI 음성으로 제작한 '우리말성경 공동체 성경읽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하용조 목사가 만난 사람&이야기', '하용조 목사의 행복한 아침' 등도 제공한다. 말씀 강해 콘텐츠에서는 영어 자막을 지원해서 국내외 시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론칭 5주년을 맞이한 CGN 퐁당은 현재 6만여 개의 국내외 기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5개 언어 AI 실시간 번역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외 영적 거장들의 말씀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수박먹자!"

차세대 방학 프로그램, 8월 15일까지

차세대 신앙 성장을 돕는 방학 프로그램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수박먹자'가 지난 7월 20일(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행사는 8월 15일(토)까지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차세대들이 방학 동안 QT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차세대 QT 교재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CGN 퐁당 콘텐츠를 활용한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수박먹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24일 동안 열린다. 필수 참여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QT' 4회가 포함된다. 전체 QT를 달성한 차세대들에게는 수박 간식을 선물로 준다. 참여 일수에 따른 단계별 선물과 1회만 참여한 차세대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02-3215-3521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여름예배

OLF 리더십, 법조인 성도 등 60명 참석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OLF)' 여름예배를 지난 7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 법조인 모임 리더십, 온누리교회 법조인 성도 등 60명이 참석했다.

OLF 여름예배는 교제 및 식사, 조주태 변호사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주제 설교 '재판장 앞에 선 사람'(미 6:6~8), 한제희 부장검사 책 소개 및 신앙간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OLF는 온누리교회 법조인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예배는 10월 27일(화)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릴 예정이다.

/ 남현영 기자

His Masterpiece, 주님의 걸작품

온누리 MK 캠프, 선교사 자녀 및 스태프 80명 참석

온누리 MK(선교사 자녀) 캠프가 지난 7월 15일(수)~18일(토)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His Masterpiece, 주님의 걸작품'을 주제로 열렸다. 선교훈련원과 두란노국제선교회 본부, 안산·인천·평택 M미션을 비롯해 몽골,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온 선교사 자녀와 스태프 80명이 참석했다. 2000선교본부 선교재능기부팀과 허브대학부가 함께 섬겼다.

이번 캠프에서는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겪은 외로움과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했다.

김재언 형제(튀니지 MK)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할 이유"라고 고백했다.

박용권 장로(2000선교본부 선교재능기부팀 담당)는 "선교사 자녀들이 '주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남현영 기자

결혼비전스쿨 With4U 참가자 모집

9월 5일~19일 매주 토 대학로 이룸

결혼비전스쿨 With4U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학로 이룸(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진행된다.

결혼비전스쿨 With4U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비전으로, 사랑과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에서 실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학교), 강미향 목사(두란노부부학교 전문강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10만 원.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5059-4459

두란노어머니학교 142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14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31일(월)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건강한 여성,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로 살도록 돕는다. 참가자들은 말씀 중심의 강의와 진솔한 나눔, 다양한 예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지혜와 비전을 함께 나눈다.

문의: 02-2182-9114

프리덤스쿨 34기 참가자 모집

회복사역본부에서 프리덤스쿨 3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4시 도곡교육관 3층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 27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7만 원(강사료와 식비, 1박 2일 수련회비 포함).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프리덤스쿨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정체성과 참된 자유를 되찾도록 돕는 회복 프로그램이다. '자유와 구원의 능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896-2477

178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178기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15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만 원. 178기 서빙고 큐티스쿨에서는 큐티의 명확한 개념과 목적,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고, 직접적인 실습으로 일상에서도 큐티를 지속하도록 돕는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7131-1284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CHE 사역 사례' 발표

제16차세계선교학회(IAMS) 온라인 참석 및 사례발표

NGO 더멋진세상 권은영 미래전략사업실장이 지난 7월 20일(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세계선교학회(IAM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ission Studies) 제16차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해 '말라위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사역 사례'를 발표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말라위 현지 주민과 함께 세운 'Bright Future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걷는 선교'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NGO 더멋진세상의 현장 사역을 국제 선교학계와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를 만들었다. 말라위 공동체의 변화를 세계 교회와 선교학계에 소개하는 결실을 맺었다.

/ 남현영 기자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 응원키트' 신청자 모집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사별이나 이혼 등 상실을 경험한 1인 가구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응원키트'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가 된 서울 시민이다. 총 100명을 선정해서 응원키트를 지원한다. 개별상담과 마음회복 집단상담, 자기돌봄 지원, 자조모임 및 사후관리도 해준다.

신청은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참고).

문의: 02-2155-8281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용인**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견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용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한솔 길혜영 김관수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상수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완 김한국 김 현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렴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원 박성천 박성훈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성우 서수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종
신원석 신주용 손정훈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길중 윤마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이환희
임동현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제홍 장지훈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충희 해롤드김
허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전임)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장건우
최강호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홍미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미애 박상준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놉 양현수 유알렉세이
에릭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성진 임진숙 정연영
정진모 제인량 최선재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고우리 고현근
구길모 국지환 권영찬 권예람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기태
김동환 김명초 김민수 김민희
김범석 김빛나 김소망 김승희
김신영 김에스더 김영범 김영옥
김예은 김예찬 김유미 김재현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화목
김효진 나가노 마사토 나영필
남 혜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막심 수스타크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성훈
박시온 박영애 박유진 박의력
박정민 박종필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성진 배윤주 삼손 멜로디
서나영 서은규 서은지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송찬욱 송 현
송현우 신대환 신지수 신호철
아마르 자르갈 안류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영광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국화 우수진
우승희 유엘리사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상영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임경미
임노완 임효영 장성엽 장영주
전가윤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승혁 정영현 정유나 정주은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영찬 조예서 조운식 조준우
조현주 조혜원 지석구 지수정
지예찬 주승환 주우형 주영진
차선일 최성진 최 은 최형주
최혜정 추선영 하예림 하헌영
한숙희 허영은 홍세나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명세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병옥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역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준규 김준용 김준홍 김지홍
김창욱 김철수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나상권 나영욱 남상길
노기홍 노재한 류기범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두원 박명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흥균 배기영
배 문 배병태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성현
서진봉 서찬교 성주명 성창섭
손정래 손한기 송기선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종환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춘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기 이상덕 이상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헌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임현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풍 정영규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탁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성현A 조성현B 조진호
조청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석훈 강은철 강종도 강찬옥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영대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경용 구자엽 국중대
권순형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섭 김동수 김동우 김동원
김동준 김동환 김만순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귀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생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의래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지학
김지현 김진현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태형 김해기 김현주
김형석 김형준 김화선 김효구
김희식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남명현 남윤영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전기 노지준
노하수 라상원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건용
박구병 박균명 박기일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명균 박명신
박복음 박성규 박승병 박언용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태식
박태준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효신 박흥선 방찬종 배승호
배창준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성광제 손기철
손기태 손태용 송동섭 송영봉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헌승 신현식 신현일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헌
안연환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종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세현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엽 우시정
원종호 유봉국 유우선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동욱 이봉걸 이삼형 이상율
이상준A 이상준B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욱 이재춘
이정구 이종우A 이종우B 이종철
이주호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달 이홍선
임창우 임 훈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관수 장광열 장문석
장성수 장승훈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진국 정광열 정기삼
정명호 정민호 정석순 정연식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용주 정운섭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재환 정제범
정찬희 정탁영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환
주성대 주영창 주재량 지상목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병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이정 최종필 최주관 최준영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갑천
하상진 하주헌 하태승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상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허 경
허대행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홍호식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전영한 정광택 정남식
정몽준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한결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윤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조지은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홍우석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김형중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승훈 박종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안성진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노우에 마키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주영
이청원 이토 히로시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증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이다니엘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청훈 한현희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권우중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남 영 노흥규 백남인 백호현
신중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방
우승호 윤영오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오현 고다이라
김승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헌제
송태민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상헌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손정래 장민용
전수열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권재현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소천

7/25(토) 양천 도성해 집사 부친상, 안수영 집사 시부상 고 도광정
7/26(일) 송파A 김보영 성도 모친상 고 하영숙
7/28(화) 브릿지33+ 박일범 성도 부친상 고 박세환
7/28(화) 서대문 정상근 집사 부친상, 강수현 성도 시부상 고 정태인
7/29(수) 가정사역 한진태 성도 모친상, 김현숙 성도 시모상 고 이금애
7/30(목) 온소망 고 조석영 성도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선정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세례

■ 광고

용인 비전빌리지 관리부 기전팀 정규직원
업무: 교회 내·외부 시설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경력 2년 이상
우대: 전기기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 세례

J4U
권태웅 950211
김민수 980408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큰잔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엡3:8)

일시

2026년 8월 15일(토) 16:00

15:30분부터 기도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올네이션스 하루 특별 시편 잠언학교

일시: 2026년 8월 15일(토)

시간: 9:00-16:00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훈련비: 1만원 (우리은행 1005-604-700231)

*현장등록은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점심식사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큰잔치는 하스데반 선교사와 국제사역팀이 인도합니다.

문의처: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독일 Tel +49 (0)179 5705756 한국 Tel +82 (0)2 796 9700

Homepage: allnationen.org Email: 7000school@gmail.com